

# ‘돌아온’ 우즈, 다음은 마스터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재기가 더욱 확실해졌다.

우즈는 지난 19일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이벤트대회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12)와 함께 출전, 이틀간 합계 25언더파 119타를 적어내 준우승을 차지했다. 비록 풀이 친 공 중 더 좋은 지점의 공을 골라 경기하는 스크램블 방식이었지만 대회 마지막날 11개홀 연속 버디를 앞세워 15언더파를 기록한 건 기적과도 같았다. 우즈가 자동차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뻔한 중상을 극복하고 이뤄낸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즈는 10개월여 전인 지난 2월 LA에서 손수 운전하다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했다. 당시만해도 그가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우즈는 수차례 뼈조각 접합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뒤 혹독한 재활을 거쳐 다시 코스에 섰다.

몸 상태가 온전한 건 아니었다. 샷을 한 뒤에는 카트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때로 다리를 절기도 했다. 하지만 대회를 마친 뒤 강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 타이거 우즈, 사진=shutterstock

이제 관심은 그의 공식 복귀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팬들은 매년 4월 둘째주 시즌 첫 메이저대회로 열리는 마스터스에서 우즈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마스터스와 우즈의 인연은 꽤 깊어 그 가능성은 높다. 우즈는 메이저대회 통산 15승 중 5승을 마스터스에서 거뒀다.

PGA투어는 내년 1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를 시작으로 2021-2022시즌을 재개한다.

# 커리와 로봇이 3점슛 대결 펼치면 누가 이길까

미국프로농구(NBA) ‘3점슛 왕’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와 로봇이 3점슛 대결을 펼친다면 누가 이길까? 조금은 황당하지만 호기심을 끄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 스테픈 커리, 사진=nba.com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가 이길 것 같다는 답이 많을 것 같지만 농구 팬들은 ‘인간’ 커리의 편을 들었다.

2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제농구연맹(FIBA)은 이날 공식 SNS에 ‘커리와 로봇의 3점슛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을 올렸다. FIBA는 ‘누구도 커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터라는 것에 논쟁하지 않겠지만 그가 로봇을 이길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설문문을 진행한 목적을 설명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추월하고 있는 요즘, 정교하게 설계된 3점슛 로봇이 인간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일본에서 2019년에 3점슛 로봇을 만들어 60% 이상의 3점슛 적중률을 자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농구팬들은 ‘사심’을 담아 커리를 응원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1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커리가 64%의 지지를 얻어 36%의 로봇을 앞섰다.

통산 3점슛 성공률이 43.1%에 이르는 커리는 지난 15일 NBA 역대 최다 3점슛 성공 기록을 썼다. 농구 선수로는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로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번 설문으로 새삼 팬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확인한 셈이 됐다.

# “추신수, 주목할 만한 ‘명예의 전당’ 후보”



▲ MLB에서 활동하던 추신수, 사진=mlb.com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추신수(39·SSG)를 ‘은퇴 선수’로 분류하고 ‘명예의 전당(HOF)’ 후보로 소개했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MLB.com은 전날 향후 5년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후보할 선수들과 마지막 기회를 얻을 선수들을 점검하며 추신수를 2026년 명예의 전당에서 첫 자격을 얻는 후보 중 주목할 만한 선수로 뽑았다.

추신수가 명예의 전당 후보로 지목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메이저리그’에서 은퇴한 선수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MLB.com은 “현재로서는 비공식적인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명예의 전당 투표 입후보 조건을 두고 “최소 10년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 5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선수”라고 명시했다.

MLB.com은 그가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KBO리그 SSG 랜더스에서 뛰던 추신수는 2022년에도 SSG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추신수가 명예의 전당에 입후보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됐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된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가 명예의 전당 후보에 등록되지는 않는다. 메이저리그에서 17년간 124승을 거둔 박찬호(48)도 명예의 전당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선수 생활 내내 저평가받은 선수 중 하나로 불렸다. 추신수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쉽지 않겠지만, 입후보는 충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랑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